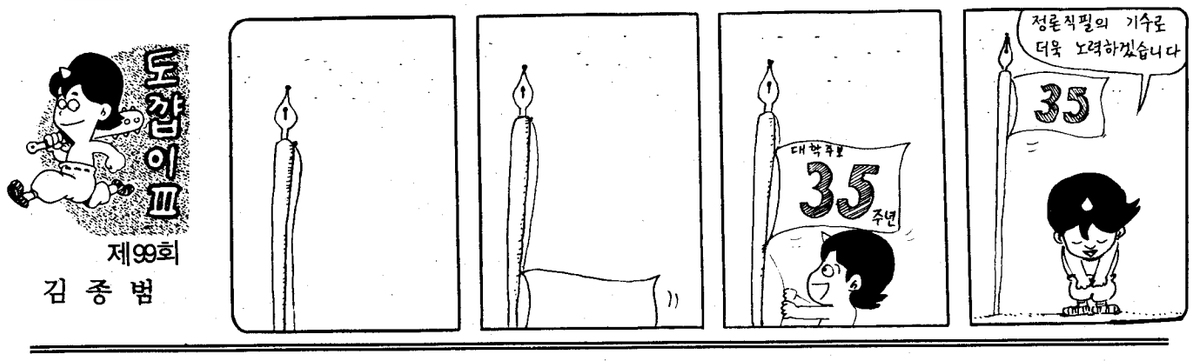

◇세종대 사태를 진단한다

극단의 혼란으로 치닫는 세종대

재단의 비민주적 학원운영이 분규초래
정상화 위해 단절된 대화 재개 절실

"학원자주화 없이는 어느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률적 현실에선 진정한 학문의 자유, 진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결사항전으로 이 한몸 던져 문교부를 응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5월1일 야간강좌학생회장 이진성(회계·4)군을 비롯한 3명의 결사대가 쇠파이프·유인물·화염병을 들고 문교부를 점거농성하기전 학우들에게 남기고 간 말이다.

반자율적 교육을 청산하고 민족·자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세종대·조선대 등의 격렬한 학원자주화투쟁을 겪으면서 지금과 같은 학원자주화가 일정부분 이루어짐으로써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은 세종대에도 파급되었고 87년 이전까지 학생자치권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 세종대의 학원민주화투쟁은 '총학생회의 인정'과 '족벌재단거부 투쟁'으로 나타났다.

세종대의 학원민주화투쟁은 이렇게 경제·복지 등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측면부터 출발, 1백여일간의 장기농성끝에 학교측으로부터 '총학생회의 인정' 등 86개항의 공증합의 사항을 얻어내며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학원의 본질적 모순인 족벌사학재단의 모순을 도외시하는 오류를 남김으로써 세종대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교측의 86개 공증사항 불이행으로 88년에 또다시 제기되었고 학교당국의 약속불이행에 반발한 학생들은 '학원의 민주화는 학원의 자주화가 없이는 안된다'는 생각이 전체 학생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투쟁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88년 43일간의 학원자주화투쟁은 '총장직선제'와 교수·학생·직원·학교행정처로 '대학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1대 직선총장으로 이종출총장이 선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이종출총장을 끝내 승인하지 않았으며 작년 8월말에 실시되었던 문교감사에서 부정입학자를 들추어 내는 등 빌미를 잡아 사퇴를 요구하고 총장직선제와 대발위를 불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재단측은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하여 박홍구총장을 선출하고 문교부는 2시간만에 박총장을 승인하였다. 이에대해 교수·직원·학생들은 총장직선제의 형태를 무시한 재단에 반발하고 전체교수협의회에서 오영숙총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3년간에 걸쳐 이루어낸 학원자주화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결의하에 방학동안 학생들은 등록금을 직선으로 선출한 오영숙총장에게 납부하도록 의견을 모았고 5천여 학생들 중 신입생을 제외한 1천8백여 학생들이 직선민주총장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며 박홍구총장을 거부했다.

또한 대발위 교수대표 이원우교수 해임, 오영숙직선총장을 징계한 학교측의 처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학생들은 4월 투쟁선포식중 전경들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당한 임홍락(국문·3)학생에 대한 재단측의 공상처리 거부가 도화선이 되어 지난 4월12일에는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학교측은 4월15일 0시를 기해 휴업령을 공고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으며 25일에는 오영숙직선총장을 해임시켰다.

이에 일부교수들은 학교측의 비민주적 행동에 휴업의 의지를 밝혔고 노조측도 파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발위 위원장인 이원우교수는 세종대사태가 대양학원재단의 비민주성과 비교육적인 학원운영에서 기인되었다고 밝히고 노조(위원장 원길상)측은 파업에 필요한 조치로서 쟁의발생신고를 냈으나 휴업령상태에서 파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 파업을 일시 연기했었다.

그러나 학교측은 등록금을 박홍구총장에게 내지 않으면 제적시킨다는 공문을 띄우고 12%인상된 차액등록금만 추가 납부하면 등록을 인정하고 오영숙총장 앞으로한 등록금 납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서약서까지 첨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같은 분열양상으로 인해 학생상호간 및 지도부에대한 불신감이 고조됨에 따라 단결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자퇴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동맹자퇴는 퇴조해가는 학생들의 의지를 모으고 전면적 사회여론화를 이끌수 있으며 박홍구총장을 거부하기 위한 선전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기된 것이다.

총학생회측도 기층세력에서부터 결의된 내용을 상층에서 수렴하여 투쟁으로 전개시키며 총궐기의 날을 반민자당 분쇄투쟁에 맞추어 5월9일로 상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87년부터 계속되어온 세종대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장사'로 개인과 족벌의 치부에만 신경을 집중해온 재단과 총장직선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한 박홍구 불법총장의 출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총파업, 휴업령공포, 민주총장해임, 학교측의 단전단수, 동맹자퇴로 치닫고 있는 세종대 학자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속에서 세종대 학자투가 가지는 의미는 민자당의 반민중적 탄압을 진보적인 청년학생에서부터 인식하면서 진정한 학원의 자주화가 민주쟁취를 따낼 수 있다는 의식을 광범위하게 제기한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총파업, 휴업령공포, 민주총장해임, 학교측의 단전단수, 동맹자퇴결의로 치닫고 있는 세종대 학자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과·단대 총회와 일상적인 토론을 통한 '나로부터의 결사와 나로부터의 투쟁'을 내와야 하며 이로써 학생회 강화를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종대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교수·학생·직원의 3주체들과 학부모·조교·동문 등이 총망라된 제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현대중공업, KBS, 민자당전당대회 등의 5월투쟁을 계기로 학원자주화가 곧 사회민주화의 초석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정치투쟁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사업의 대중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종대 총학생회장 홍성수(관광경영·4)군은 "학원자주화 투쟁의 실패는 곧 세종의 암흑을 말하는 것이지만, 재단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세력들을 막아내는 일은 비단 세종대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고 백만 청년학도의 연대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자주없이 민주없다'라는 말이 입증하듯이 진정한 학원의 자주화에서부터 민주화는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5천 세종인의 자주화된 학원은 백만학행의 '연대투쟁'으로 더욱더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대기련 동부지평공동기자단〉

취재노트

◇…언론계의 대자보 알레르기

제도권 언론의 자체문단속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누워서 침뱉는 신문사가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

대구 某신문사가 왜곡, 축소된 기사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노조원 4명을 징계했다는데.

언론관계자님들,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아성찰의 품성 없이는 '정론'를 펼 수도 없겠거니와 듣기 거북하다 하여 오른소리 바른소리를 애써 묵살하시는 '소아병'은 하루빨리 청산하심이 좋지않을까 하오

◇…부처님도 노할일

석가탄신일 가석방 명단을 보면 인자하신 부처님도 버럭 화를 내실듯.

양심수 석방은 뒤로 제껴 놓았다손 치더라도 권력형 비리범인 전 나랏님의 형님을 금새 풀어주는 법관나으리들의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소이다.

혹시 이러한 처사에 분개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묘방이라도 마련해 내셨는지요?

◇…공권력이 연출한 깜짝쇼(?)

지금 울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화가 기획되고 있다는데, 각본인즉…

'좌경불순세력이 침투한 노동현장에 공권력을 투입', 이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이 골리앗 크레인등으로 강하게 맞서고, 이에 분개하신 나랏님 드디어 용단을…

어허! 나으리들 헬기와 군함 동원등 제작비 지출이 많은 3류 영화보다는 제작비 적게 들고 대종상을 겨냥할 만한 대작 '민자당 공중분해쇼'를 벌이심이 민중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학회실의 새주인 파리(?)

고황골 某과학회실에서 '아직 때도 이른 파리가 나타나 버젓이 주인행세를 한다'라는 괴이한 소문에 놀라 노트子 직접 확인한 즉.

의당 있어야 할 본주인은 간데 없고 먼지 덮인 의자며 책상들만이 을씨년스럽게 쌓여있어 노트子 아연실색.

某과 獅형님들! 이럴수가 있소. 가뜩이나 공간부족으로 홍역을 치르는 마당에, 버려진 자치공간이라니! 설마 다른 곳에서 학업에 열중하시느라 이렇게 무관심해지지는 않았겠지요?

◇…도깨비 뿔에 불났네

월요일 오전11시-각 단대별로 도깨비 신문 배포.

오전 12시 수위실 앞-도깨비 신문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오후 4시 우체국-40원짜리 우표가 불티나게 팔리고, 우체통은 무심히 접힌 도깨비 신문으로 가득.

서천골 獅형님들, 타대학생으로부터 우리학교 소식을 들어서야 되겠읍니까?

파리가 주인된 학회실?

인복위 '취업대책위원회' 구성

수원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많은 학생들에게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각 단대대표(이하6명), 총여학생회 1명, 졸업준비위원회 2명, 인복위 1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취업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각 단대별로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특강뿐아니라 취업에 관계된 책자도 발간하며 취업시즌에는 각 기업체별 실전문제를 수록한 문제집도 낼 예정이다.

영자신문사 33기 수습기자 모집

수원캠퍼스 영자신문사는 제33기 수습기자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취재, 사진, 컷기자이고 원서는 각 단과대학 수위실에서 교부하며 오는 14일까지 영자신문사(공과대학 611호) 또는 신문방송국장실(공과대학 612호)에서 접수한다.

시험은 오는 14일 오후 6시에 영자신문사에서 치뤄지며 과목은 상식, 작문, 영어이다.

축구부 '춘계연맹전' 본선진출

본교 체육대학 축구부가 '90년도 전국 춘계대학축구 연맹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본선에 진출한 총24개 대학 가운데 1조에 속한 본교 축구부는 오는 16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리는 충남대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조 리그전을 갖게된다.

학원소식

동문모임

오산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오산고=오는 12일 대성리에서

【수원캠퍼스】▲경신고=오는 10일 오후5시40분 1호관휴게실 ▲제주향우회=오는 10일 오후5시 1호관휴게실 ▲청주향우회=오는 10일 오후5시 1호관휴게실

습 득

분실자 본사편집실로

【서울캠퍼스】▲수첩=박봉조 ▲도서대출증=△진창남(영교·88) △이영호(의예·89) △김길래(영어교육·89) △노현준(영문·88) △박현건(법학·85) △김선미(무역·86) △한용섭(지리·87) △신준영(의예·88) △조수정(간호·89) △이세현(의예·89) △김의자(지리·87) △정태형(화공·83) △박미라(식품영양·89) △정태중(회계·85)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강규진(치예·2) ▲소미진(사학·4) ▲김정미(국문·2) ▲장세찬(국문·1) ▲석지인(국문·1) ▲박혜영(지리·2)

알 림

지난 4월 30일자(제953호) 1면 머릿기사중 '수원캠퍼스 경영학과등은 현실적으로 중복학과의 통합이 선행된 후 분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며'라는 기사는 '경영대 설립후 중복학과 문제 논의'의 오보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면 고황만평은 특정종교를 비하한 것이 아니라 현정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朔風 "우리들이 돌려받는 문명의 부패와 악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새마을지도자 김상문씨는 요즘 울고싶은 심정이다. 3만여평의 만수면적을 가진 목골저수지는 이 마을의 젓줄이다. 제법 알려진 낚시터인 목골저수지가 중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5년전 저수지 상류에 돈사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여름이면 악취를 풍겨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기더니 어느날 요란한 망치질 소리와 함께 생리대 공장이 들어서면서 저수지 아래로 흐르는 실개천은 온통 붉은 빛으로 변했다.

이 물을 담아 농사를 짓던 이 일대의 논은 바닥부터 조금씩 썩어들어갔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됐지만 소용이 없었고 최근 그 생리대 공장은 생산시설을 두배로 늘렸다.

이 물은 옥천에서 내려오는 금강 줄기에 합쳐져 대청호로 흘러들어간다.

옥천서 내려오는 금강 본류도 썩어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옥천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 물은 다시 대전시민의 식수원이 되기고 하고 한밭들녘을 적신다.

문제는 이쯤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청호에 스무군데쯤 자리잡은 수상 가두리에서 자라는 향어(일명 이스라엘 잉어)는 또 다른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횟감으로도 애용되는 향어는 항생제가 섞인 사료를 먹고 자란다. 병에 대한 내구성을 길러주기 위해 투입되는 항생제는 결국 사람의 몸속까지 따라온다.

항생제를 복용한 양식어를 사람이 섭취하려면 3~20일의 휴약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양식장에서 횟집으로 직송하고 있고 유통기간이 1~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설되지 않은 항생물질이 사람에게 유입되고 사람의 몸은 이들 항생물질에 '쓸모없는' 내성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수산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항생제 중 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및 클로람페니콜 등은 이미 인체에 막대한 부작용이 있음이 밝혀진 품목으로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겐 작은 양으로도 치명적이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자정능력을 가진 물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더욱 비극적이다. 팔순의 어류학자 최기철 박사는 해방이후에 남한에서만 서호납줄갱이, 종어 등 2종의 어류가 멸종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문명의 치욕'이라고 표현했다. 모든 문명의 출발이었던 물에서 우리는 바로 문명의 부패와 악취를 돌려받고 있다.

지난해 양은 냄비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던 '수돗물논쟁'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대책으로 상정됐던 각종 규제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다. 공장을 세우지 말자는 것도 아니며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아니다. 자정능력을 잃은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아수라장같은 정치의 뒷켠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한 인류학자의 말처럼, 거대한 중국이 희망을 잃은 것은 인구밀도가 높아서도 아니고 공산주의 때문도 아니다. 중국의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이다.

〈풀잎〉

영어회화·일본어 특강 안내

본교 언어교육연구원에서는 영어회화강좌와 일본어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개설과목 및 모집인원
   (1) 영어회화 (초급반) : 아침반 · 오후반 각15명
   = 미국인 강사
   영어회화 (중급반) : 아침반 · 오후반 각15명
   = 미국인 강사
   (2) 일본어 특강(초급반) : 아침반 ·오후반 각20명
   =일본인 강사
   일본어 특강(중급반) : 아침반 · 오후반 각20명
   = 일본인 강사
2. 강의 기간 및 시간
   (1) 기간 :1990. 5. 14.-7. 6. (8주)
   (2) 시간 :아침반 (월·수·금) 07:30-09:00
   오후반 (월·수·금) 17:00-18:30
3. 수강료
   (1) 재학생 :80,000원
   (2) 일반인 :100,000원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기간 1990.4. 30.-5. 12. 선착순 마감
   (2) 접수처 :시청각교육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연구원(전화 961-0211)또는 시청각교육원 (전화 961-0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0. 4. 30.

경희대학교 언 어 교 육 연 구 원

제 9 회 전국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1.주제 :·한민족공동체의형성과'남북연합'의 실천적 과제
·남북한 평화정착 및 신뢰조성 방안
·대학인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
※ 위 논제 중택 1
2.대상 :·대학(대학원)재학생
3.시상 :·최우수작1편: 상장 및 부상100만원
·우수작2편: 상장 및 부상 각50만원
·가작 5편: 상장 및 부상 각30만원
·장려 5편: 상장 및 부상 각20만원
※최우수·우수·가작 입상자에 대해서는 공산권 (동·소련등) 연수기회부여
4.마감 : 1990년 8월30일
5.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80매 내외
6.발표 : 1990년 10월중 (개별통지)
7.보낼곳 : 국토통일원 교육홍보국 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8.기타 :·응모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논문제출시 재학증명서 1부 첨부
·자세한 내용은 본교 국제평화연구소(961-0201) 국토통일원(738-7522)에 문의 바람.

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여름학교 Counsellor 모집

국제교류위원회에서는 이번 여름 '90 조국순방여름학교와 재미교포 대학생 단기교육을 개최하는 바, 교육기간중 모국어와 역사 및 조국의 참모습을 알려줄 Counsellor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개 요

	조국순방여름학교	교포대학생 단기교육
교육기간	7월2일-7월17일(15박16일)	6월26일-7월9일(14박15일)
교육장소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광릉캠퍼스평화복지대학원
교육인원수	120명	120명
교육대상	고등학교1학년-대학생	대학생
교육과목	한국어, 역사, 문화예술, 한국경제, 유적지방문, 산업시찰 관광, 수학여행(경주)	한국어, 역사, 문화예술, 한국경제, 유적지방문, 산업시찰, 관광, 수학여행 (설악산)
모집 Counsellor	0명	0명

2. Counsellor자격
   1) 본교 3학년- 대학원생으로 영어회화 가능자
   2)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갖추고 품행이 단정한 자
   3) 피교육생들과 교육기간 동안 숙식이 가능한자
3. 제출서류
   1) 이력서 1장
   2) 지도교수 추천서 1장
4. 제출기간 :1990년 4월23일(월) -5월11일(금)
5. 특 전 :약 20만원 장학금 지급 예정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90전반기 예비군 교육훈련

수원캠퍼스 직장예비군 교육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가. 교육대상 및 일정

일자 \ 구분	대상대학 및 부서	과 목
5.28(월)08:40-17:00	교직원, 자연대, 체대, 외대	정신교육 :4시간 산악행군 :4시간
5.29(화)08:40-17:00	공과대학 전원	
5.30(수)08:40-17:00	사회대, 산대, 대학원생	

나. 장소: 수원캠퍼스1호관 시청각실 및 행군로
다. 집결방법: 개인집결
라. 교육훈련 제외자
   1) 현역, 보충역 공히 당해년도(90년도)전역자
   2) 지역에서 90년도 교육훈련16시간 이수자(90년도 복학생만 해당)
   3) 소집면제자
마. 준비물: 필기구 및 산악행군 할수 있는 준비
바. 유의사항
   1) 예비군 복장은 휴대하여 훈련장에서만 착용
   2) 교육당일 08:40분까지 입장완료(30분이상 지연도 착자는 불참처리)
   3) 복장착용시 계급장, 부대마크, 공수(유격) 마크는 부착할 수 없으며 예비군 표식(전투모, 전투복 좌측주머니 상단) 만 부착
   4) 중식지참
   ※ 기타상세한 것은 예비군 연대본부(교, 2068/2069)로 문의 바람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